

# “지금 징하게 허벌나게 행복합니다”

“씩~씩,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며, 바람을 가르며 흐르는 소리여.” (영화 ‘화려한 휴가’ 대사)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러내도 뒤질랜드, 어쩔거나 뒤질랜드, 결국은 뒤질랜드.” (드라마 ‘뉴하트’ 대사)  
 이쯤 말하면 선뜻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아~’ 하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이다. 바로 ‘뉴하트’ (MBC)에서 흥부와 외의 의사인 배대로 역으로 맹활약중인 광주(조대부고 졸업) 출신 배우 박철민이다.  
 그는 요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네티즌이 선정한 ‘맥스무비 최고영화상’에서 남자 조연 배우상도 받았고, 그가 출연 중인 연극 ‘늘근 도둑 이야기’는 매회 매진되는 기록(유료 객석점유율 104%)을 세우며 얼마 전 연극 공연에 들어갔다.



웃음 주는 조연 광주 출신 배우 박철민

## ‘화려한 휴가’서 시민군 인봉역 없어서는 안될 ‘비광’같은 존재



지난해 11월 개봉한 ‘스카우트’에서는 여주인공 세영 (엄지원 분)에 향한 마음을 담아 “나는 비광... 광임에도 존재감 없는 비운의 광. 하지만 그대가 광박 위기를 맞을 때 지켜주는 것은 나 비광”이라고 읊었던 창작시(?) ‘비광송’을 비롯해 ‘안주가 건방지다’는 등 유행어를 끊임없이 쏟아내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 ‘뉴하트’의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인터넷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 그를 전화 인터뷰했다.  
 “배우는 관객들의 사랑을 먹고살아요. 요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불안합니다. 이 사랑 조금씩 나눠서 평생 길게 받고 싶는데 말이죠.”  
 그는 20년 가까이 30여 편에 이르는 영화에 출연했으면서도 무명에 가까웠다. 최근 치솟고 있는 인기비결에 대해 박씨는 “바로 외모”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넉살 좋은 시민군 인봉역에 많은 사람이 박철민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뉴하트’ 덕분에 여러분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최고의 남자조연배우상  
 <화려한 휴가>  
 박철민

최근 시청률 30%를 넘어서 드라마 ‘뉴하트’에서 치프 레지던트 배대로 역으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박철민.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특유의 코믹연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려한 휴가’ 속 인봉처럼 다시 도청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박씨는 “동네 어귀까지 나갔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수없이 반복하며 망설임 끝에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결국엔 안 나갔을 것 같다”며 “대신 마음 한 편에 부끄러움을 평생 안고 살았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의 아픈 역사이지만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를 노래하는 영화라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려한 휴가’에서 보여준 그의 코믹함과 익살스러운 연기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과 잘 버무러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배고팠던 학창시절 기행 일삼아 경쟁없는 조연 끈끈함 있어 좋아



그에게 뿔어져나오는 예상치 않은 ‘끼’는 대학(중앙대) 시절 그가 저질렀던 기행(奇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교 내 호숫가에서 낚시를 했다가 하면 배가 고프면 비둘기를 잡아먹기도 했다고.  
 “그건 철없던 시절에 저질렀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배고파서 그러긴 했죠.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은 의상 술 값으로 다 갖고 나면 밥 사먹을 돈이 없었죠. 그래서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어슬렁거리는 비둘기 잡아서 진흙 돌려놓고...”(웃음)  
 이 정도의 인기라면 주연에 도전해 볼만 하겠다는 말에 박씨는 “오�히려 CF 주인공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정상은 즐깁니다. 바람도 세고 경쟁도 심하고 아래만 보이고, 조연들끼리는 경쟁 안 하거든요. 서로 인정하고 추천하는 끈끈함이 있죠. 또 다양하게 여러 인생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왕가위를 다시 만난다

광주극장 29일부터 ‘왕가위 스페셜’



양조위, 장만옥 주연의 ‘화양연화’.

광주극장(cafe.naver.com/cinmagwangju)은 오는 29일부터 3월6일까지 왕가위 감독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왕가위 스페셜’을 마련했다.  
 상영작은 ‘중경삼림’ ‘타락천사’ ‘화양연화’ 등 모두 세편. 90년대에 청춘을 보낸 관객들에 왕가위 감독의 영화는 아련한 추억과도 같다.  
 누군가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들으면서 ‘중경삼림’의 금성무처럼 유희기만이 같은 통조림을 모으며 실연을 달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타락천사’의 막문위처럼 금발 가발을 쓰고 거리를 쏘다니다고 싶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누군가는 ‘화양연화’의 주인공들처럼 애타는 사랑을 가슴에 묻어둔 채 낫길 풀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다.  
 양조위·장만옥·임청하·왕정문 등 인기 배우들의 예전 모습을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문의 062-224-585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목! 이영화 ‘3:10 투유마’ 서부극의 화려한 귀환

1957년 델버 데이비스 감독의 동명 작품을 리메이크한 서부극으로 연기와 배우 러셀 크로와 크리스천 베일이 주연을 맡았다.  
 목장주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댄 에반스는 서부 일대를 두려움에 몰아넣은 전설의 무법자 벤을 유마의 교수대로 보낼 호송대가 된다.  
 3시 10분 유마행 열차에 벤을 태우기까지 댄의 일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2분. 벤의 부하들은 시시각각 추격해 오고, 댄의 일행이 한명씩 이탈해 가면서 댄만이 홀로 호송대에 남는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영화 내내 충동하는 두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재키 브라운’, ‘조지 클루니의 표적’ 등을 집필한 소설가 엘모어 레너드의 소설이 원작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3:10 투유마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히미
선악간 대립이라는 서부극의 고정 관념을 깬 21세기 서부극. 15세 관람가.	
데스노트 : 새로운 시작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전편에 이어 최후의 23일동안 새로운 사신과의 대결을 그렸다. 15세 관람가.	
어텐먼트	롯데(첨단), CGV(상무), 씨너스 전대, 콜럼버스(상무)
한 소녀의 오해와 질투가 낳은 비극적인 리브스토리. 15세 관람가.	
주노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16세 소녀의 임신과 임양이라는 소재를 유쾌하게 그린 성장 드라마. 12세 관람가.	
아루주아 아르마스	콜럼버스(하남)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장인 미셀 오슬로의 3D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6년째 연애중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오래된 동갑내기 커플의 현실적인 이야기. 15세 관람가.	
추격자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쫓고 쫓기는 연쇄살인마와 전직 경찰 이야기. 18세이상 관람가.	
점퍼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공간이동을 하는 액션 히어로의 이야기. 15세 관람가.	
대한이 민족씨	롯데(첨단),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엔터, 히미
‘덜 앤 더머’로 내세운 순정 코미디. 15세 관람가.	
스파이더워크의 비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서로 갈등하던 가족이 한방바 소동을 겪는다. 전체 관람가.	
오펜하이저 : 비밀의 계단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 씨너스 전대, 히미
서스펜스를 강조하는 스페인산 판타지 스릴러. 15세 관람가.	
더 게임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상무·첨단), 엔터, 히미
신하군과 변희봉의 몸이 서로 뒤바뀐다. 12세 관람가.	
원스 어폰 어 타임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히미
빈우, 이보영이 ‘해빙기’ 코믹 액션 영화를 보여준다. 12세 관람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롯데(광주), 콜럼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엔터, 히미
김정은, 문소리 주연의 2004년 아테네올림픽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실화.	

